

지역 소식통

부안군,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1일 실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오는 31일 군청 대회의실 및 직소천 일원에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극한호우에 따른 하천 주변 침수 및 댐붕괴 상황을 가정하고 주민대피 및 인명구조, 시설복구 태세를 점검 점검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훈련에는 부안소방서, 부안경찰서, 8098부대 1대대, 한국전력공사 부안지사 등 유관기관 외에도 대한적십자사 부안지구협의회, 해병대전우회,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훈련은 2회로 분산돼 실시되는 안전한국훈련 과정 중 상반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함께 도모하는 통합연계 훈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난대응 역량을 다각적으로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정읍교육지원청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MOU

정읍시는 23일 시청에서 정읍교육지원청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화수 시장과 최용훈 교육장이 참석해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력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복합화 사업추진을 위한 대내외적인 여건 조성 △자료, 정보 등 상호공유 △부지 공동 활용 및 사업추진 방안 협조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교육청은 정읍제일고 부지를 제공하고, 시는 이 공간에 지역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민정원, 체육관 등 학생과 시민에 필요한 복합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화수 시장은 "교육,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정읍여건을 개선해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과 힘을 모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샘고을시장 화재 대책 강력

정읍시, IoT 화재경보장치 도입 152개 설치... 불꽃·연기·온도 복합감지 초기진화 유도

정읍시가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샘고을시장에 안전시설을 확충했다.

시는 화재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하여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샘고을시장 147개 점포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화재경보장치 152개를 설치했다고 23일 전했다.

시는 지난 21일 정읍소방서, 시설업체와 화재경보장치 작동상태와 점포

주·119상황실 연동상황 등 시설 전반에 걸쳐 점검을 완료했다. 약 1개월간 시험 운영을 거쳐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화재경보장치를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시에 설치된 IoT 기반 스마트 화재경보장치는 이번에 설치한 샘고을시장 152개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앞서 설치한 중앙로 등 상점가 4곳 337개를 합쳐 총 489개다.

IoT기반 화재경보장치의 장점은 장치 내 센서가 3가지 화원(불꽃, 연기, 온도) 중 1가지 화원을 감지하면 즉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화원의 종류와 위치 등을 해당 점포주에게 휴대폰 문자와 전화 등으로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해 신속한 초기진화 등의 초동대처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장치 내 센서가 2가지 이상 화원을 감지하면 실제 화재로 인식해 즉시 화재 발생 시각, 주소, 위치 등의 정확한 정보를 자동으로 119 상황실에 전송해 신속한 화재 진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문 관제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365일 24시간 내내 화재를 감시해 보다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할 수 있고, 점포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센서의 감지 감도를 조정해 비화재(오작동)를 방지해 무분별한 소방서 출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IoT 기반 화재경보장치 설치로 대형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샘고을시장을 전국 제일의 안전한 전통시장으로 조성해 이용객과 상인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샘고을시장 147개 점포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화재경보장치 152개를 설치했다.

부안군-청도시 크루즈 관리국, 크루즈 협력 MOU

전북·인천·산동반도 주요 기항지로 크루즈 항로 개발

부안군이 지난 22일 청도시 국제크루즈 서비스 관리국과 크루즈 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아시아 크루즈 관광 트렌드는 2박 3일, 3박 4일 정도의 단기간 상품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그 변화에 맞춰 청도시는 대한민국의 서해안을 주력으려는 상품을 개발 중이다. 이번 부안군과의 전략적 MOU는 산동반도와 인천 및 전북을 주요 기항지로 하는 크루즈 항로 개발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최영두 부안군 부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전라북도 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서, 전북에 크루즈 산업에 대한 더욱 커다란 기회가 열렸다"고 전북 크루즈 관광산



부안군이 지난 22일 청도시 국제크루즈 서비스 관리국과 크루즈 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진흥지구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부안군과 청도시 크루즈 관리국이 상생 협력하면서 양국의 크루즈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것을 확신한다"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청도시 국제 크루즈 서비스 관리국 가오보 국장은 "청도시 크루즈 관리국 및 중국선사들은 이번 '청도시-인

천-부안'을 연결하는 크루즈 항로에 상당 부분 깊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한국 방문에 중국 선사를 비롯한 중국 북방 크루즈 경제연구소에서도 함께 동행한 만큼 중국과 전북을 연결하는 크루즈 항로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부안 크루즈 기항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업 근로자 교류 등 우호 관계 강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차관, 고창 찾아 자국 근로자 격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난 22일 응성리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차관 방문으로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1,600명을 배정받아, 3월 9일 캄보디아 재입국 근로자 100여명 입국을 시작으로 올해 전체 계절근로자 입국 인원 1,500명 중 공공형계절근로자 30명을 포함한 MOU 250여명, 결혼이민자 250명으로 캄보디아 근로자만 500명에 달한다.

이날 캄보디아 응성리 차관 등 방문단은 고창군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시설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특히, 차관은 기숙사의 위생 관리와 안전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며,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차관은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실제 일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했다. 차관은 자국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과

근무 조건을 점검하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사를 표했다.

특히, 한 근로자는 "고창군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생동감 있는 경험"이라며, "농장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와 친절한 지역 주민들 덕분에 일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방문단은 대한민국 6차 산업의 성장인 '상하농원'을 찾았다. 차관은 상하농원의 친환경 농업 방식과 지역 특산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농원에서 재배되는 다양한 농산물과 이를 활용한 제품들을 시식하며, "이곳의 친환경 농업 방식과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다"고 말했다. 저녁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만찬을 가지며 농업·노동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고창군은 캄보디아 근로자들을 위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양국 간의 문화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제17회 구절초 꽃축제 준비 돌입

정읍시의 대표 축제인 구절초 꽃축제가 올해는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별관 4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2차 구절초축제추진위원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시는 우선 구절초의 아름다운 경관 제공과 이를 배경으로 한 휴식공간, 포토존을 강화해 편하게 쉬며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절초 정원 이외에 4개의 테마정원(물결, 들꽃, 참여, 솔숲)의 넓은 공간을 활용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총 6개 분야 50개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와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경관지를 활용한 다양한 포토존 제공, 클래식 공연, 잔디광장의 포토존·휴식·공연·놀이·체험의 다목적 공간 활용, 사진 관련 다양한 이벤트 등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전북 1호 지방정원에 걸맞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협력한 '반려 식물 클리닉', '구절초 묘목 분양', '가든마켓' 등 정원체험형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특히 축제 전에는 음식품평회와 가격협의회를 갖고 축제 기간 중에는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와 민관 합동 판매장 평가단을 운영해 최고의 맛과 가격, 메뉴의 다양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귀농귀촌도시부문 브랜드 대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귀농귀촌도시부문에서 12년 연속 수상하며, 귀농귀촌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갔다.

고창군은 2007년 전라북도 최초로 귀농인 지원요제를 제정한 이후,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에 노력해 왔다.

특히, 고창군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대출자의 자부담 이자 중 1%를 3년간 연비로 추가 이차보전을 하

여 귀농 초기 충분한 소득이 없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멘토 컨설팅 사업과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마을 화합 분위기를 조성할 위한 융화 프로그램인 마을환경회 지원사업, 동아리 지원사업 등이 있다.

또한 예비 귀농귀촌인이 고창에서 먼저 살아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7년째 운영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